

현대엘리베이터

2016 **MARCH** VOL. 250
www.hyundaelevator.co.kr



세계로 뻗어나가는 생산 혁신의 꿈, **GI부**
대전지사가 추천하는 '대전 1박 2일 여행'
삼색 매력! **산악회, 조우회, 건강달리기동호회**



이달의 얼굴



1 우리 부서를 잘 나타낼 만한 장소를 찾아라!

Gi(Global Innovation)부의 인터뷰와 사진 촬영은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Gi부는 단체 사진을 좀 더 의미 있는 곳에서 찍고 싶어 했다. 이내 이천 본사 내에서 부서의 특성을 잘 나타낼 만한 곳을 물색했다. “공장 내부는 다른 부서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이 천에 있는 타워전망대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콘셉트는 어떨까” 등 이런저런 논의를 하다 Gi부와 가장 잘 어울리는 장소를 찾았다. 타워 1층 벽에 있는 세계지도 앞. 세계 공장 선진화에 성공하겠다는 Gi부의 의지와 딱 들어맞는 곳이었다. 조명 때문에 선명하게 보이는 않지만 ‘HYUNDAI ELEVATOR’라는 글자도 일부러 프레임 안에 넣었다. 이런 내용을 알고 보면 Gi부의 단체 사진이 평범해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2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미소가 봄날의 햇살을 꼭 닮은 5명은 대전지사의 송지영 영업5부 부서장과 권미희(대전영업), 최미영(대전총괄영업), 홍혜란(대전설치), 김술지(대전서비스)(왼쪽부터) 사원이다. 씩스럽다며 사진 촬영을 거부하던 송지영 부장도 여사원들 사이에서는 저절로 웃음꽃을 피웠다. 알고 보니 대전지사 여사원 4인방은 입사 17년 차인 최미영 사원의 진두지휘 아래 살림뿐 아니라 분위기까지 똑소리 나게 이끌고 있었다. 걸 그룹에 비유하자면 조금 세 보이지만 실력파들만 모인 ‘씨스타’라고나 할까?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4명의 여사원 중에서 씨스타 호린은 누구일까?

3 모델 포즈가 익숙해요

Gi 부서원의 개인 사진 촬영 중 시선이 일제히 한 직원에게 쏠렸다. 그는 바로 생산기술지원팀 황인수 기원. 그가 새로운 포즈를 잡을 때마다 “어쩌면 저렇게 표정이 자연스럽냐”, “모델 같다”, “능청스럽다”며 부서원들은 환호를 보냈다. 황인수 기원이 카메라에 익숙한 이유에 대해 사진 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기복 기장이 설명했다. 동호회에서 촬영을 하러 나갔을 때 카메라와 조명을 설치한 뒤 테스트 촬영을 하는데 그때 황인수 기원이 자주 모델로 섰기 때문이라고. 회장이 속한 부서여사인지 Gi부에는 사진 동호회 회원이 여럿 있다. 함께 작품 사진도 찍고, 사진 봉사 활동도 다니고, 더불어 멋진 ‘모델 포스’까지 얻을 수 있으니 일석삼조의 동호회라고 할 수 있겠다.



04

Theme

기 짝이 살리는 기술, 칭찬

06

Talk Talk

세게로 뻗어나가는 생산 혁신의 꿈, Gi부
“우린 아직 배고프다”

10

Tasty Road

대전지사에서 추천하는 1박 2일 여행
과학과 미래의 中心, 대전

14

Lounge

나의 취미 동호회를 소개합니다!
산악회, 조우회,
건강달리기동호회



16

비즈니스 에티켓

꼭 알아야 할 전화 예절
내가 회사의 얼굴

17

Solution

사례로 알아보는 업무 프로세스
Pending 기간 중 유지
관리료 청구

18

HDEL Head line

2016년 경영전략 세미나 개최 외

21

Board

2016년 임직원 콘도 활용 TIP
봄철 여행,
회사 콘도 사용법

22

Partner

서우기전
끊임없는 도전으로
전기의장품 업계를 선도하다

23

Event

HDEL인, 당신이 궁금해요!
“나의 동료들 칭찬합니다”

24

현대엘리베이터 안전 캠페인

추락재해 예방하려면!
생명선과 안전벨트,
당신의 생명을 살립니다



발행일 2016년 3월 4일 발행인 한상호 편집인 최석규 발행처 현대엘리베이터 홍보부(02-3670-0717)
주소 서울특별시 중로구 을곡로 194(연지동) 현대그림빌딩 5동 501호
편집 (주)알피코프(02-550-8228) 사진 Photo StudioD(070-4903-0825)
출력 새빛(02-516-8166) 인쇄 벡호인쇄(031-946-0981)

〈현대엘리베이터〉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엘리베이터에서 발행합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내용 및 사진, 외부 필자의 글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의 힘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바로 ‘칭찬’이다. 하지만 칭찬도 잘해야 효과가 있다.
칭찬받는 칭찬의 기술을 익혀두자.

mini interview

카사노바에게서 칭찬 노하우를 배우자

전미옥(CM연구소 대표)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이 단순한 명제는 가장 이상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CM연구소 전미옥 대표는 본능에 충실했던 현대의 난봉꾼 카사노바에게서 칭찬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고 말한다.

“카사노바는 남들은 몰라주는 것을 찾아내서 칭찬했습니다. 상대방의 매력을 찾아내는 것이죠. 남자 사원의 경우 업무 능력과 성과를, 여자 사원의 경우 과정을 짚어서 칭찬하면 효과가 큼니다.”

두 번째 노하우는 현재의 파트너에 올인하는 것이다. 카사노바는 절대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 전 대표는 만약 상사나 후배가 과거에 잘못을 했더라도 현재의 모습과 미래를 내다보면서 칭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네가 그러면 그렇지”, “그 성격이 어디 가니?” 보다는 “앞으로는 잘할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 대표는 칭찬 재능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한다. 칭찬도 자주 해야 한다는 것. 평소 칭찬거리를 찾으려면 주변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칭찬할 만한 것을 메모해두는 것도 칭찬 재능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한다.

전미옥 대표가 알려주는 칭찬받는 직장인의 7가지 습관

1.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항상 진심으로 대한다.
2.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장점을 갖고 있다. 상대의 장점을 찾아 칭찬한다.
3. 마음으로부터 늘 고맙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말이 되어 나오는 것이 칭찬이다.
4.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생활한다. 그래야 나의 칭찬에 무게와 힘이 실린다.
5.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지닌다.
6. 때와 장소에 맞게 분위기를 잘 파악한다.
7.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

2009년 <포춘>이 선정한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중 1위에 이름을 올린 ‘넷앱’의 톰 멘도자 부회장은 “직원들은 다른 회사에서 더 나은 직책이나 연봉을 제안받았을 때가 아니라 지금 회사에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이직한다”라고 말한다. 직원들로 하여금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칭찬이다.

하지만 무조건 칭찬한다고 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형식적인 칭찬은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진심을 담은 칭찬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있음을 느끼게 함으로써 나에게 호감을 갖게 한다. 또 칭찬을 통해 확실한 동기 부여가 되기 때문에 업무 성과가 높아지며, 다른 직원들에게도 특특히 효과를 미친다.

01 타이밍이 중요하다

인생 법칙이 그러하듯, 칭찬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이 반감된다. 칭찬할 일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하거나 몇 주나 몇 달 후에 포상한다면 직원들은 칭찬받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어 동기부여 효과가 떨어진다. 따라서 가능한 한 즉시 칭찬해야 하며, 그 이유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을 운영하는 초석은 모든 직원의 창의력과 지적인 힘을 격려하는 것이다.” -해럴드 A. 폴링(포드 자동차 회장)

02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긴장하지 않고 발표를 아주 잘했어”, “고객이 아주 만족했어” 등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구체적인 말로 칭찬해야 한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 대해서도 칭찬해야 앞으로 업무 방향을 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동기부여가 된다. 이때는 “그 부분에서 그렇게 처리할 줄은 나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라는 표현이 가능하다.

03 업적에 따라 다르게 칭찬한다

칭찬의 말이나 손편지, 작은 선물 등 다양한 방법 중 성과에 어울리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칭찬받을 내용과 칭찬의 크기가 맞지 않으면 상대방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것. 평소 직원의 취향을 알아두었다가 외식상품권 등을 선물하면 감동이 배가한다.

04 공정해야 한다

직원이나 상황에 따라 칭찬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너무 인색해도 안 되지만 너무 과하게 칭찬하는 것도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한다. 같은 강도로, 공개적으로 빠뜨리는 사람 없이 칭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어기면 칭찬이 자칫 누군가를 편애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평소 업무를 지시할 때에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직원들도 이를 따르고 칭찬받으려고 노력한다.

“부하 직원을 어떻게 칭찬할 것인지는 바로 당신이 결정할 일이다. 지금 당신은 직원들을 선별해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가? 칭찬과 격려를 통해 모든 직원이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라. 당신이 직원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한다면 그들도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을 위해 봉사할 것이다.”

-메리 케이 애시(메리 케이 화장품 창업자)

05 간접적인 칭찬이 효과가 크다

직접적으로 칭찬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팀원이나 고객 앞에서 팀원을 간접적으로 칭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카드에 메시지를 써서 전달하는 것도 효과가 오래간다. 고객 앞에서 “그 일을 해낸 사람은 여기 있는 ○○ 팀의 ○○○ 씨입니다. 이번 일을 하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다른 팀원에게 “이번 시안은 ○○ 씨 아이디어가 제일 좋은 것 같아”라고 구체적인 업무 사례를 인용해 팀원을 칭찬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자긍심이 높아진다. 이는 팀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06 관찰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놓치지 않는다

흔히 과정이 아닌 결과에 대해서만 칭찬하는 경우가 많다. 성과를 내야 하는 조직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좋은 성과를 내는 직원만 칭찬받을 것이고, 결국 칭찬은 무의미해진다. 성과가 좋은 직원도 칭찬해야겠지만 관찰을 통해 작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하는 직원도 칭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지각하던 직원이 정시에 출근했을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칭찬을 한다면 그 후로 지각하지 않을 것이다.

참고 서적 <신나는 회사를 만드는 칭찬의 기술>(새로운 제안)

세계로 뻗어나가는 생산 혁신의 꿈, GI부

“우린 아직 배고프다”

올해 신설된 GI(Global Innovation)부는 기존 생산기술팀을 중심으로 생산부의 관리형 인재들을 뽑아 만든 부서다. 공장 내 설비 신규 설치 및 검토, 장비 구매, 공정 개선 등의 업무와 해외 공장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GI부를 만나 칭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GI부가 하는 일은 상당히 포괄적이지만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표준화 작업과 혁신 활동을 통해 현대엘리베이터 이천공장(이하 이천공장)을 세계 최고의 공장으로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진화된 이천공장의 장점을 접목해 해외 공장을 이천공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개선, 개선, 또 개선

GI부는 생산 과정에서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는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수동적인 개선도 하지만 수치를 통해 문제를 예측하는 능동적인 개선을 중요하게 생각

한다. 가령 수주가 늘면 생산성이 향상되어야 한다. 현재 엘리베이터 월간 생산량은 1,500대를 넘는 수준이지만 올해 안에 월간 2,000대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작업자 기술 향상과 장비 개선, 비용 증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예측, 대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설비 투자 규모가 크게 늘어 더욱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개선과 혁신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천공장에서는 공장 혁신 컨설팅을 3년째 진행 중이다.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 활동인데 생산 공정에서 3SMP(표준화·단순화·공용화, 모듈화, 플랫폼)를 통해 구조부터 생산 과정의 모든 부분을 혁신하는 것이다. 공장 내 낭비와 불



혁신지원팀 김병국 대리

“설계, 프로세스에 능통해 해외 공장에 이천공장의 장점을 전달하는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중요한 인재. 어떤 일이든 가정주부처럼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새는 일이 없게 한다.”
〈조경호 부장〉

생산기술지원팀 전승기 대리

“하기 싫은 일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쉽게 포기하는 법이 없다. 어떻게든 일이 되게 한다.”
〈김병국 대리〉



생산기술지원팀 윤주황 사원

“회식에 꼭 필요한 존재. 상대방의 기분을 잘 맞춰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최고의 동료이자 술 동무.”
〈전승기 대리〉



생산기술지원팀 김경민 기성

“현장 경험이 풍부해 업무 처리를 합리적으로 하신다. 판금반에서 30년 근무하신 데다 반장을 오래 하셔서 기계나 공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물어보면 설명을 잘해준다.”
〈이근백 대리〉



생산기술지원팀 이근백 대리

“아는 게 많아서 배울 점이 많다. 업무는 물론 사회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언을 많이 해주신다.”
〈장흥제 사원〉



혁신지원팀 장흥제 사원

“긍정적인 동료 중에서도 가장 긍정적이다. 현장 근무를 많이 하다 보면 힘든 일도 많을 텐데 내색하는 법이 없다.”
〈손은호 사원〉



혁신지원팀 손은호 사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업무에 충실히 임한다. 항상 밝은 GI부의 분위기 메이커.”
〈윤주황 사원〉





생산기술지원팀 팀장 **김정수** 차장

“부하 직원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GI부원들에게 잘해주신다. 포용력 있게
합리적으로 일을 잘 지시하는 빼어난
팀장의 능력을 찾았다.”
〈김경민 기장〉



생산기술지원팀 **이기복** 기장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설비를 담당하는
얼리 어댑터. 남들보다 앞선 경험과 지식을
현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현장과
소통도 잘되고 좋은 성과도 낸다.”
〈김정수 차장〉



혁신지원팀 팀장 **김계수** 차장

“상사로서 위계질서를 내세우지 않고 업무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신다.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조연도 많이 해주셔서 큰 힘이 된다.”
〈김영주 사원〉



혁신지원팀 **김영주** 사원

“전 부서에 있을 때 장비 구매 담당자로서 어려운
산업·장비 용어 등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이
구매한 장비도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는 등
열정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현재는 해외 연계
업무 지원 담당자로서 톱 부러지게 일한다.”
〈이기복 기장〉



생산기술지원팀 **황인수** 기원

“공정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일정에
따른 생산 실적이 지켜질 수
있도록 묵묵히 성실하게 일한다.
그리고 가정적이고 따뜻한 남자로
소문났다.”
〈김계수 차장〉



생산기술지원팀 **박성민** 사원

“우리 부서에서 없어선 안 될 존재.
현장 직원들에게 잘하고 이야기를 잘
들어줘 특히 현장에서 인기가 많다.”
〈황인수 기원〉

부서장 **조경호** 부장

“업무 면에서는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차근차근 잘
알려주신다. 업무 시간
외에는 형처럼 분위기를
즐겁게 이끌어주신다.”
〈박성민 사원〉



필요한 일을 줄이고 청소를 습관화하는 것이 컨설팅의 주된 내용
이다. 산업공학 교육도 받고 있다. 공정 분석, 작업 분석, 동작 분
석 과목을 교육받고 사내에 전파하고 있다.

GI부가 칭찬을 아끼는 이유

이렇게 GI부는 오직 개선만 생각한다. 부서원들은 사내에 '개선
제안'에 대한 포상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개선이 주요 업무인 GI
부에 개인 포상을 했다면 아마 회사가 거덜 났을 것이라며 웃는
다. 포상이 아니라면 칭찬은 많이 주고받았을까?
칭찬에 대한 얘기를 하니 조금 어색한 분위기다. 업무 특성상 문
제를 찾아내는 게 일이다 보니 칭찬에 인색하다는 GI부. 설계 도
면을 그리거나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는 데 한 번의 실수도 상당
히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칭찬보다는 지적을 많이 하는 편이라
고 한다. 하지만 회식 자리에서는 서로를 높여주기 바쁘다. 이기
복 기장은 칭찬이 건배사일 정도라고 말한다.
부서장인 조경호 부장도 칭찬을 잘 하지 않는 편이라고 했다. 부
서원 14명 중 GI부가 현재 맡은 업무를 해본 사람이 별로 없다. 처
음 가는 길이기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칭찬을
아끼게 된다는 것이다.

칭찬은 양보다 질

조경호 부장은 칭찬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조직에서 적재적소
에 쓰일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다. 칭찬을 많이 하기보
다는 드물게라도 제대로 된 칭찬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다. 시장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고, 이럴 때일수록 해외
공장의 성공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좀 더 개선하고 발전하기 위해 많은 부분을
지적하게 된다고 말할 때는 사뭇 비장함이 느껴졌다.
칭찬 릴레이를 시작하자 처음엔 조금 쑥스러워하던 부서원들의
애정 고백이 이어졌다. 동료의 유쾌한 매력부터 평소에 느낀 감사
함이나 존경의 말까지 길게 이어져 지면 관계상 다 실지 못한 것
이 아쉬울 정도다.
GI부는 오늘도 긴장을 늦추지 않기 위해 고삐를 바짝 당길 것이
다. 이들을 만나고 나오는 길에 히딩크 감독의 말이 생각났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큰 꿈을 이루기 위해 서로를 채찍질하며 업무에 매진하
는 GI부도 같은 마음일 것이다.

부서장 조경호 부장 ▶

“이천공장의 장점을 접목해 상하이,
브라질 공장을 이천공장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생산기술지원팀 ▲

한마디로 생산 공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생산 현장의 생산 설계, 공정
설계, 작업 환경 개선이 주요 업무다.



혁신지원팀 ▲

해외 법인 생산의 거점 역할. 신공장 건설 시
생산, 구매, 설계, 생산 관리, 출하 전 과정에 걸쳐
조직적으로 기술력을 지원한다.



중국 상하이공장

브라질공장



한빛탑



스카이로드

대전지사 3인방이 추천하는
1박 2일 여행

과학과 미래의 中心, 대전

대전은 지방자치 시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로
나날이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대전지사 역시 위치와 역할
등 모든 면에서 현대엘리베이터의 중심이라 할 만하다.
봄기운이 마음까지 녹이는 3월, 대전지사 3인방이 엄선한
맛집과 관광지를 따라가보자.

전술과 전략의 시발점, 대전지사

대전은 우리나라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가 세종시가 생
기면서 도시의 역할이 더 막중해졌다. 서울에서 KTX로 한 시간
거리에 불과하고, 대구 등 다른 도시에서 오기에도 부담 없는 거
리이다 보니 모든 것이 대전을 ‘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런데 대전지사 사원들의 자부심은 이보다 더하다. 현대엘리베
이터의 심장부로 각 지사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
은 갤러리아 타임월드엔 단일 건물 중에서는 가장 많은 79대 엘
리베이터가 들어서 있을 뿐 아니라, 대형 보수 현장을 다량 보유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대전지사에서 먼저 주도해서 잘해나가면 다른 지사에서 따라서
바뀌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사 영업을 확장하는
영업5부 부서장이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지사에서 전술과 전략
을 짜고 변화를 이끌어나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큼니다.”



대전서비스팀 이일형 직장, 박완철 직장, 김정남 과장, 변상윤 사원, 김남근 사원, 우종희 사원, 이부한 사원, 최돈민 기원, 이성재 기장, 김진규 차장(뒷줄 왼쪽부
터) 신하늘 대리, 박종환 사원, 강희웅 사원, 김성수 사원, 정종대 기원, 양찬직 기원, 김솔지 사원, 김대중 기원(앞줄 왼쪽부터)

김선형(영업팀 차장) 지사장은 대전지사는 인적 인프라가 잘돼
있고 조직력이 탄탄한 것이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팀원들과 융화
가 잘되고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당연히 성과도 좋다.
대전지사는 불만 사항이나 서운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야기할
정도로 서로 신뢰가 쌓여 있다. 유독 가족적인 분위기가 강한 것
또한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올해에도 현대엘리베이터의 중심 역할을 기대해도 좋
을 듯하다.

대전영업팀, 보수 교체 공사 시장 중점 공략

지난해 대전지사의 영업 실적은 광주지사에 이어 2위를 차지했
다. 순위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는 1위라고 생각한다는 김선형
차장. 올해에는 팀원들과 함께 800억 원 수주를 목표로 파이팅
을 외치며 출발했다.

“영업팀 인력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은 그만큼 대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전지사의 경우 세종시를 비
롯해 혁신 도시들이 생기면서 물량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형 차장은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머릿속
에 그리고 있다. 우선 대리점 판매원의 수를 더 늘려나갈 생각이
다. 실질적으로 수주할 힘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직영팀과
함께 영업 시너지 효과를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형 보수 현장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심분 활용할 계
획이다. 현재 전국 교체 공사 시장에서 현대엘리베이터가 차지하
는 비율은 50% 정도인데, 대전지사는 점유율이 80%에 이른다.

대전서비스팀, 고장 데이터 분석 후 점검에 반영할 것

대전서비스팀은 직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팀 19명, 협력사팀 9명
등 총 28명으로 이루어진다. 관리 대수는 직영과 협력사를 포함



대전영업팀 정재철 차장, 윤상일 과장, 박영준 대리, 장순태 차장, 김선형 차장(지사장) (뒷줄
왼쪽부터) 박희광 사원, 정근성 사원, 최미영 사원, 권미희 사원(앞줄 왼쪽부터)

해 총 8,359대로, 관공서가 들어서 있는 세종시까지 관리하다 보
니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김진규 차장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선후배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서비스팀의 경우 평균 나이가 40세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평소
에 팀워크를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동료와 우리를 생각하면서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희생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팀원들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
다는 김진규 차장. 고장 수리의 경우 담당자가 사전에 고장 데이
터를 분석해서 점검 현장에 반영하게 하는 것이다. 스스로 책임
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열정적인 자세를 갖는다면 충분
히 가능한 일이다.

대전설치팀, 협력사도 가족처럼 챙기며 입지를 공고히 한다

어느 누구보다 봄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대전설치팀의 김명훈 차
장. 겨울에는 설치 물량이 평균을 밑돌아 고전했지만 3월부터는
공사 수가 평균 이상으로 올라서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협력사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물량이 줄면 우리와 연계된 협력사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공존 공생
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월별 설치 건수가 평균
이하인 협력사의 경우 함께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협력사 대표끼리
회의를 거쳐 물량이 적절하게 나뉘도록 조절하고 있습니다.”
김명훈 차장은 현장에서 부딪히는 일이 많다 보니 팀원 간 끈끈
한 유대가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
는 것은 물론, 매주 목요일 팀 미팅을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서
로의 문제점을 공유함으로써 대화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 안전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 과학과 미래 도시, 대
전의 랜드마크가 있는 현장이라면 어디든 함께하겠다고 한다.



대전설치팀 홍해란 사원, 김명훈 차장, 박건우 부장, 이태병 기원, 김영욱 기장, 이기연 사원
(왼쪽부터)

현지인처럼 즐기는 대전 1박 2일 코스



첫째 날

◎ 초대형 LED 스크린이 대전 하늘을 밝히다

대전은 카이스트가 있고 엑스포가 개최되었던 도시이니만큼 과학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엑스포과학공원, 국립중앙과학관, 천문대 등을 둘러보거나 대전역 부근의 으능정이문화거리에 조성된 대전스카이로드에서 첨단 과학 기술과 문화의 접목을 경험해보는 것도 좋다.



엑스포과학공원

1993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박람회인 대전엑스포가 열린 이후 지금까지도 대전의 상징 역할을 하고 있는 엑스포과학공원 한빛탑의 야경을 빼놓을 수 없다. 대전엑스포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이곳은 첨단과학관, 대전엑스포기념관&통일관, 대전문화교통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엑스포기념관에서는 전 세계의 수많은 엑스포 기념품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흥미롭다. 예전에 비해 다소 쓸쓸한 면이 없지 않지만 오늘의 대전을 만든 장소로 여전히 많은 시민에게 사랑받고 있다. 위치 대전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 | 문의 042-869-5114

계룡산장

김정남 과장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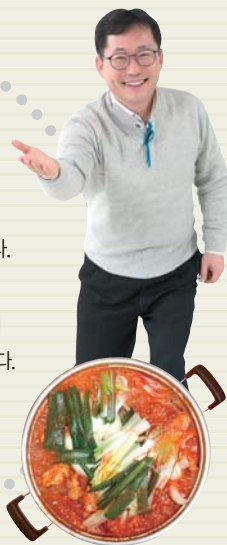
대전오월드 인근에 위치한 이곳은 능이오리수육전골 등 오리 요리가 주메뉴이다. 부드럽고 담백한 오리 수육에 부추를 곁들여 먹은 후 능이버섯과 한방 재료를 넣어 끓인 전골을 먹으면 진한 국물을 맛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골 국물을 찰밥을 말아 먹으면 속이 든든하다. 재료 준비에 40분 이상 걸리므로 예약은 필수. 능이오리수육전골(4인 기준) 5만8000원. 위치 대전시 중구 사정공원로 216-1 | 문의 042-581-2887(매월 첫째·셋째 화요일 휴무)



한영식당

김명훈 차장 추천

얼마 전 TV 프로그램 <백종원의 3대 천왕>에 소개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지만 토박이들에게는 이미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다. 오류동 먹자골목에 1959년 문을 연 닭볶음탕 전문점으로 푸짐한 채소와 감자, 특제 양념이 어우러지면서 매콤하고 중독성 있는 맛을 낸다. 20분 정도 끓이는 사이에 두껍을 열지 않아야 닭고기에서 잡내가 나지 않는다고. 닭볶음탕(대) 3만3000원. 위치 대전시 중구 계룡로874번길 6 | 문의 042-533-2644



대전스카이로드

으능정이문화거리에 조성된 초대형 LED 스크린 시설 '대전스카이로드'. 첨단 과학 기술과 문화 예술의 만남을 통해 대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면서 많은 젊은이가 즐겨 찾고 있다. 해가 진 뒤 하늘을 뒤덮은 초대형 LED 스크린에서 나오는 K-팝이나 광고 등의 화려한 영상이 주변 간판 불빛과 어우러지면서 장관을 이룬다. 3월까지의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영되며, 월요일은 휴장한다. 위치 대전시 중구 중앙로 164 | 문의 042-252-7100



왼쪽부터

- 대전서비스팀 김정남 과장 | 안전기원제를 지내기 위해 방문한 맛집의 전골 맛에 반해 이후로 단골이 되었다. 주로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는 맛집을 자주 찾는다.
- 대전영업팀 박영준 대리 | 영업을 하다 보니 TPO(time, place, occasion)에 맞는 맛집을 꿰고 있다. '적덕식당'은 영업팀의 송지영 부장이 전수해준 곳으로 매콤한 음식이 당길 때 찾는다.
- 대전설치팀 김명훈 차장 | 음식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진국'을 선호한다. 주로 회사 주변의 맛집을 이용하는 편이다. '한영식당' 외에 들깨가루를 넣어 끓인 사래깃국이 맛있는 '순남사래기'도 추천했다.

둘째 날

◎ 부추빵만 있는 줄 알았는데...

대전은 칼국수, 두부두루치기 등 저렴하면서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서민 음식이 발달했으니 대전에 들른다면 꼭 한번 맛보자. 칼국수는 '오씨칼국수'를 비롯해 '공주칼국수', '스마일분식' 등이 유명하고, 두부를 매콤한 양념에 볶은 두부두루치기는 '적덕식당', '광천식당', '진로집' 등이 맛있다.



유성명물문화공원 족욕 체험장

도심 한가운데에 자리한 야와 공원에서 온천에 발을 담그는 체험을 해보면 어떨까. 대전 유성온천은 조선 태조가 새 왕도 후보지를 물색하기 위해 계룡산에 들렀다가 목욕을 했다고 전해 내려와 유명하다. 이곳은 바로 이 유성온천을 체험할 수 있는 족욕 체험장으로, 170명이 동시에 족욕을 즐길 수 있는 4개의 족욕 시설을 갖추고 있다. 발을 씻을 수 있는 수로 시설과 말릴 수 있는 윈드 건 등의 편의시설이 잘 조성돼 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무료다. 위치 대전시 유성구 온천로(유성온천역 7번 출구) | 문의 042-611-2718

대전시민천문대

과학의 도시 대전시가 운영하는 천문대. 유익한 천문 관측 프로그램을 비롯해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각각 별과 함께하는 시 낭송회와 음악회를 무료로 볼 수 있는 만큼 문턱을 낮춘 '하늘놀이터'라고 할 수 있다. 동형 천장에 빔을 쏘아 마치 우주 안에 있는 느낌을 체험하는 천체투영실은 잠재된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위치 대전시 유성구 과학로 213-48 | 문의 042-863-8763



적덕식당

박영준 대리 추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숯불에 구운 매운 족발이 50년 전통을 자랑하는 이 집만의 특징이다. 고추장과 생강, 마늘 등을 넣어 만든 양념장은 매콤하면서도 자극적이지 않아 그냥 먹어도 좋고, 술안주로도 제격이다. 1회용 장갑을 낀 손으로 불맛이 나는 족발을 잡고 그 위에 부추김치를 올려서 먹는 것이 정석. 푸짐한 두부오징어두루치기도 매콤하고 맛있다. 양념족발 1만5000원(소), 두부오징어두루치기와 사리 6000원. 위치 대전시 동구 우암로 220-3 | 문의 042-633-4293



오씨칼국수

대전은 칼국수로도 유명하다. 그중에서 오씨칼국수는 직접 뽑은 수타면에 물총(동족)을 넣어 칼국수를 만든다. 각종 해산물과 약재를 넣어 만 하루 이상 우려낸 시원하고 몸에 좋은 육수로 만드는 것이 비법이다. 담백하고 깔끔한 맛보다 칼칼한 맛을 즐기고 싶다면 고추를 다져 만든 양념장을 넣어 먹으면 된다. 물총손칼국수 5000원, 물총탕 9000원. 위치 대전시 동구 중앙로204번길 75 | 문의 042-255-0850



